

『 민족의 아픔과 환희의 보관함, 목포근대역사관 』

지리교육과 2학년 이봉조

☞ 답사포인트

- 목포근대역사관의 설립 의의에 대해 알아보자.
-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목포에 위치한 이유를 알아보자.
- 일제시대 건물의 철폐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자.

1. 목포근대역사관의 어제와 오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우리나라의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지를 빼앗고, 대륙침략의 중추기지로 삼기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건설하였다. 특히 목포는 전라도 지방의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시작하여 논산, 이리, 김제를 거쳐 목포 사이를 잇는 호남선의 개통과 동시에 일본의 물류항으로서 일찍이 개항을 하였다.

이 호남선은 군사·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경부·경의선에 비해서 순전히 경제적 목적을 위해 건설된 것이다. 즉, 호남평야를 관통하는 호남선은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건설한 후 일본농민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에 유입시켰다.

현재 남아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목포와 부산이 있는데, 목포지점은 부산지점보다 규모면에서 더 컸다. 이것을 보아 당시 목포가 얼마나 성장했었는가 알 수 있는 간략한 척도가 된다.

목포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현재 목포근대역사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 뻗속 깊이 배어있는 옛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건물은 현재 근대역사관으로 목적을 탈바꿈하여 국내최초로 일제 침략시기 때의 잔혹한 사진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주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그곳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담아놓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제1전시실에서 보여주는 일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찍힌 여러 가지 잔인한 사진들을 보면서 식민지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 목포근대역사관

목포근대역사관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제 침략의 산물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건물이 새롭게 쓰이고 있는 곳이다. 원래 이 건물은 2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를 철거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본관은 반성의 역사로서 남겨두자는 의견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2층짜리 건물로서 제1전시실, 제2전시실로 구분되어 있다.



《목포근대역사관 현재 모습》



《105인 사건 재판과정(제1전시실)》

출처: 근대역사관 안내지

- ☞ 제1전시실(2층) : 일제의 침략사
일제의 침략사 및 조선왕조의 최후의 모습 사진
민족열사들의 활동
일제의 의도적으로 촬영된 극악무도한 모습
광복의 기쁨



《공동수도의 조선인(제2전시실)》

출처: 근대역사관 안내지

- ☞ 제2전시실(1층) : 사진으로 본 목포의 옛모습
조선인과 일본인의 생활상
개항이후 목포의 역사, 전경
도시의 이중적 모습
식민지 시대 목포항의 발달과정

3. 동양척식주식회사

1)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을 넘어 대륙침략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이름에 대해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조선 안에서의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면 엄연히 이름을 “조선척식주식회사”라고 명명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동양척식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들은 간판에 담긴 계략 그대로 후기에는 간도, 만주 등 동남아지역까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하였고 본사는 경성(서울)에서 동경으로 옮겼다. 이것은 식민 당시의 계획이 단순한 조선만을 상대한 단기계획이 아니었고, 동양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을 지배하여, 그 나라의 경제를 지배해가면서 일본제국을 확장하겠다는 침략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어낸 동양협회는 어떤 과정으로 회사를 설립했는지 보기로 하자. 협회장은 1907년 약 한달 동안 만주와 한국을 시찰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여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한국경영은 먼저 식민지 경영을 하여 농업진보개량을 꾀하고, 한일내국민의 화친을 두텁게 하는 양국민간의 경제적 관계를 발달케 할 것」을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총리는 회사설립을 연구하여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다.

일본의 대외외교나 국정의 계략에는 반드시 유명한 민간인을 앞세워 중요한 일을 연구·추진케 하였고, 그 민간인은 서민의 신분이 아닌 소위 사족출신이나, 구 관리출신, 귀족신분이나 퇴역군인 등의 관청의 하청용역을 맡아 할 수 있는 국수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조선경제를 설립시기부터 수탈하기 시작하였다.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역할

먼저 동양척식주식회사는 합법적인 회사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을 이용하였고, 국제사회에서 합법적회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조선의 농업, 토지 등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의 선진 농업기술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을 조선에 각종 특혜를 주어 이주시켰으며, 일본인 마을을 건설하여 기존의 조선인들을 묘지 등 외곽으로 몰아넣었다.

그로인해 조선에서의 조선인은 제 땅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로 내몰리면서 자작농이 아닌 소작농으로 대부분이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 고향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만했다.

4)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목포에 위치한 이유

예로부터 목포는 광활한 나주평야를 끼고 도는 영산강이 서해안과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여러 섬들을 아우르는 위치에 있어 교통의 요충지였다. 목포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의 자연지리적 환경에 대해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산강은 서쪽으로 흘러 무안의 목포에 이르는데 … 강 건너는 큰 평야를 이뤄 … 풍기⁴⁵⁾가 화창하고 땅은 넓고 물자도 넉넉하며 서남쪽 강과 바다는 운수의 이익을 통제하여 광주와 함께 명읍이라 일컫는다. … 중앙의 한 길이 강신과 같아 배들이 이곳을 따라다닌다.” 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이점은 이곳을 해양 활동이나 문화전파의 길목이 되기에 충분하게 하였다.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조차 지방의 곡물을 중앙으로 수송하는 조운로의 길목으로 주목하였다. 목포는 호남은 물론 영남 일부지역의 세곡까지 운반하는 운송로의 길목으로 완도의 가리포진과 진도의 벽파진⁴⁶⁾을 거친 배들은 반드시 목포를 지나야 했었고, 나주 영산창에서 나오는 조운선도 목포를 지나, 지도·임자도를 거쳐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목포를 일제는 개항장으로 선정하였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포는 영산강의 강구(江口)에 있어 내륙의 소비시장까지 기선으로 직접 화물의 운반이 가능하고, 나주·능주·광주 등 큰 시장을 배후에 끼고 있어 화물의 집산이 용이하며, 전라도의 쌀을 운반하기에 편리한 항구라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목포가 개항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일제 식민정책의 최고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목포에 설립하여 전라도의 곡물을 수탈해 가기 시작하였다.

4. 아픈 역사를 둘러보고

예로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틈틈이 노려왔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이 월등히 우수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빈번한 침략을 슬기롭게 막아냈다. 하지만 일본은 쇄국정책을 택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빠르게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대륙으로의 침략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섬나라 일본이 21세기인 현재까지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재료로써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뼈아픈 고통을 당하였다.

외교활동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나라의 관리들과 이미 국력을 상실한 정부는 일본의 압박에 의해 결국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화산섬 일본에는 없는

45) 풍기(風氣) :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풍속)

46) 전남 진도군 진도 동부 해안가에 있던 나무터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와 대륙진출의 용이함과 반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갖가지 이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반도의 허리가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로서의 매력을 느꼈으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이점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되어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는 더 이상 한자리에 머무르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면 안 되겠다.

북쪽으로 대륙을 통해 진출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양, 항공의 발달로 인한 주변 인근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현재 동아시아 무역허브로서의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철도 연결을 시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일본과는 해저터널을 연결하자는 등의 계획이 있다. 특히 해저터널과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학계에서는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부산항은 동아시아 허브항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우리나라의 것이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사사건건 우리나라의 영토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때의 아픔이 배어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 도시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마련이다.

시간의 켜 도시의 문화유산④ 목포 중앙교회

민예총, 켄쳐뉴스 2007-04-30

오늘도 도심 어딘가에는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출현한다는 것은 곧 기존 것들의 소멸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없앨 것인가.

건축의 경우 선택의 기준은 건축물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된다. ... 이제 문제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다.(중략)

고석규 교수는 "모든 건축물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건

축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각 도시가 개성을 잃고, 서울의 축소판이 되는 것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도시 개발과 일제 흔적 퇴치를 명분으로 한 일제시대 건축물 철거가 계속적으로 진행됐다. 1996년 광복절을 맞아 목포시에서 철거한 봉안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봉안전(奉安殿)은 천왕 사진이 있었던 곳으로 목포에 있던 일본인들이 신사참배를 하던 곳이었다.(중략)

1935년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 죽동교회(구 중앙교회)도 철거논란에 휩싸였다. 목포시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 2002년 당시 철거를 계획했고, 목포의 시민사회는 이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나갔다. 당시 문화재청은 죽동교회의 유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2003년 9월 죽동교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됐다. 이때 지붕 등은 소실됐지만 석조건물이었던 죽동교회의 뼈대는 고스란히 남아, 시민사회는 이를 보존·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어느 날 죽동교회는 철거됐고,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건축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목포에서 일제시대 건축물 보존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999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가 제기되면서이다. 그 운동은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아 1999년 9월 3일자로 전라남도 중요문화재 99-3호로 지정되면서 철거 논의가 중단됐고, 보존·활용 쪽으로 결론이 났다.(중략)

《참고문헌》

- 강태경 / 1995 /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조선경제 수탈사 / 계명대학교출판부
- 서우열 / 2005 / 개발 없는 개발 / 은행나무
- 역사신문편집위원회 / 1997 / 역사신문6 / 사계절

《참고사이트》

- 민예총.컬쳐뉴스(<http://www.culturenews.net>)